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음 깨기

어린 시절

교회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어린시절은 어땠나요?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쁨, 슬픔, 아픔, 즐거움의 추억들이 어린이를 자라나게 합니다. '한 알의 대추가 저절로 붉어 질 리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 서로 어린 시절의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 시절 자전거를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1. 어린 시절 어떤 어린이였는지 나눠 보세요.(에피소드 중심으로)
2. 꿈 많던 어린 시절의 꿈들을 나눠보세요.

5월

5일 어린이주일
"히즈쇼 뮤지컬"

12일 어버이주일
"김성중 교수 초청 장년 일일 말씀사경회"

6월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경배 찬양

예수께로 가면

1.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2.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 하세요
3.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후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선교

[이운주 선교사]

필리핀

1. 새생명 중국인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2. 타이타이에 중국인 원단 상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3.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경배하도록
4.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각자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인도함을 받도록

교회 소식

1. **5월 사도행전 말씀** 5월 사도행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더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새벽반주** 내일 새벽예배부터 새벽예배 반주가 시작됩니다.
3.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날 예배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와 함께 1~3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4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신앙인"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꼭 함께 예배드리시게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호스트패밀리** 오는 5월 18일 토요일 전주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유학생들과 '1일 홈스테이'와 이어서 '호스트 패밀리 결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문장 큰 울림

눅아들지 않으면 그럴듯하지 않고
즐겁지도 않다. 마음은 특히
그렇다. (지금의 세계는 마음이
만드는 세계가 아니거니와)
눅아들지 않으면 마음은 필경 삶의
전부인 저 진실의 순간을 만나지
못한다.

- '눅아들다_정현중' 시 중에서 -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37-39)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실로 놀랍습니다. [행2:37]"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들과 상관있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찢리다(카타)"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찌를 듯 에는 듯", "날카로운 면도날로 베인듯이"라는 의미가 담긴 날카롭게 가해지는 고통을 뜻합니다. 강렬한 자기 후회와 책망의 감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겠는가? 오순절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재해석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의 표시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행2:38]"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38절)"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그 말을 받은 사람들(41절):이 세례를 받았습다. "받았다(아포데코마이)"는 "기쁘게 받았다, 환영했다, 인정했다, 찬양했다,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의 청중은 마음을 칼로 베는 듯 예리하고 호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질문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다. 그 말씀대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되도록 맡겼습다.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42-47절)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결과는 개인의 내면의 변화와 결단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행2:42]"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교제, 떡을 떼, 기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삼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을 사도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다.

말씀 공동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였다(몰두하였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배움도 충만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43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즉,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고 계심을 성령의 사람들이 금세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기준인 공동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이 결론인 공동체로 나아가길 믿습다.

교제 공동체

교제(코이노니아)는 성도간의 영적인 교제, 물질적 교제, 성례를 통해 하나 되는 성례전 교제, 공동체가 하나 됨을 누리는 교회적인 교제 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행 2:44-45]"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언뜻 보면 사유재산 없이 모두가 유무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있어, 통용하고, 팔아, 나눠 주며"라는 동사는 모두 미완료시제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번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으로" 형편껏 가진 것을 팔아서 더 곤란하고 찢절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행4:32]"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한 것을 보면 곤경에 처한 지체를 보면 언제나 자기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결과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집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나눔1]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찢림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나요?

[나눔2]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 가야 할까요?

나눔

주일 말씀 [우리가 어찌할꼬? / 사도행전 2:37-47]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